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혼합연구

복지율 · 감태오

pp. 95–97 · DOI 10.99999/n.2023.21.3.095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순차 설명적 혼합연구로 살펴보았다. 설문 180명의 자료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았고(r = −.35), 이어서 8명을 면담하여 그 이유를 물었다. 면담에서는 시험 직전의 불안과 부모의 기대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야기되었다.

주제어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혼합연구, 고등학생

Ⅰ. 서론

수치로 확인한 관계의 이유는 설문만으로 알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설문 결과를 먼저 얻은 뒤 면담으로 이유를 묻는 순차 설명적 설계를 쓴다.

※ 이 논문 요약본은 『클로드 엑셀왕』 예제를 위해 만든 가상 자료입니다. 저자, 학술지, 쪽수, DOI, 수치는 실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단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8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180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설문 응답자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거나 낮은 학생 8명을 면담하였다.

2. 측정 도구와 면담

학업 스트레스는 연구자가 구성한 8문항(5점 척도, α = .85)으로 측정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면담은 설문 결과를 보여 주며 이유를 묻는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은 Pearson 상관분석을, 면담은 주제 분석을 하였다. 두 결과는 논의에서 함께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설문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은 r = −.35 (p < .001)였다. 면담에서는 시험 직전의 불안과 부모의 기대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야기되었다.

표 10. 연구 단계별 참여자

단계	방법	참여자 수
1단계	설문	180
2단계	면담	8

IV. 논의

면담 참여자 8명은 점수가 높거나 낮은 학생을 골랐으므로 전체 학생의 경험을 대표하지 않는다.